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4기 남여대협 평가

(남여대협 중집 안)

0. 평가의 방법

◉ 논의 형태

남여대협 중집 및 14기 남여대협 대표자회의에서 평가

◉ 평가의 원칙

① 주체적 입장과 여성민중 중심의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주체적 입장이란 남에 대한 의존을 버리고 자력갱생의 원칙으로 자기문제는 언제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입장과 사업과 투쟁의 과정에서 나서는 문제는 자기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조적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운동에 대한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역할을 다 해나가려는 입장과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학생운동을 총화함에 있어서 철저히 주체적 입장을 견지하며 객관의 현상적인 변화에, 대중의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기회주의적, 절충주의적 시각과 자신의 인식의 판단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조직과 동지의 탓으로 돌려버리려는 개인주의적 시각 그리고 관성적인 주체 혁신의 구호만을 내걸고 실천적인 결의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모든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자기 비하적 평가를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여성민중을 중심으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객관의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입장과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 수탈하는 일제와 빼앗기는 농민의 입장이 다르듯) 특히나 우리를 둘러싼 많은 역사와 사실이 대부분 남성중심적이고 지배자 입장에 의하여 씌여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층 여성민중들을 중심으로 하여 평가를 하는 입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② 주체를 세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체운동상황과 정세의 변동, 주체역량의 성숙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으면 당면 운동상황은 대중 상식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으며 자신도 모르게 운동론적 견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추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운동을 총화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단히 주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 운동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며 전체운동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정치사상적 수준을 부단히 높여 높은 사상이론적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여학생운도을 총화하고 분석하여 여학생운동 활성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객관적 현상이나 수치 뿐 아니라 주체역량의 성숙정도가 총화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업과 생활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현상적인 수치나 사람의수를 두고 그것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

다. 교육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책을 얼마나 읽고 몇 번이나 학습을 했느냐가 총화의 지점이 아니라 학습과정에서 참가자의 정치 사상적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가가 평가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집회를 얼마나 참여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집회에 참여한 대중들의 준비정도와 결의가 어떠한가입니다 운동총하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 여학생운동의 원칙적 요구에 얼마나 부응했으며 그 실천 주체를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켰는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단위의 역량을 잘 파악하고 역량의 준비정도에 맞는 총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④ 성과의 요인을 잘 챙기고 그 힘으로 한계를 극복할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총화하여야 합니다.

주체역량의 성숙정도를 중심으로 총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칫 주관주의와 자기 만족주의의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관주의, 자기 만족주의는 현실에 안주해 버리지만 주체적인 총화는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자세를 확고히 견지하려는 사상적 관점으로 주관주의, 자기 만족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체적 총화란 바로 성과의 요인을 잘 챙기고 그 힘에 기반해 나섰던 한계까지 극복해 사업과 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총화를 하는데 있어서 패배주의와 절충주의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패배주의와 절충주의의 근본은 현실의 일시적인 어려움과 객관현상의 변화무쌍함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릇된 경향으로 이는 오래되면 나중에는 운동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사소한 고민이라도 조직과 동지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학생운동에 있어서 명확한 이론과 실천적 경험의 부족, 운동사가 짧음으로 인해 여학생운과 전체운동과의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운동이 내용적으로 깊어지면서 나서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로 본질적으로는 사상투쟁의 과정에서 극복될수 있습니다. 이는 저절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부단한 연구와 학습, 토론과 논쟁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 이속에서 동지를 경계하고 의심하고 동지의 진심어린 마음을 몰라준다고 했을때는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고 동지들간의 결속력을 떨어뜨릴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때일수록 조직은 동지를 믿고 동지는 조직을 믿으며 사소한 고민이라도 털어놓고 반드시 학습과 토론을 통해 결론을 얻으며 주체를 세워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⑥ 한계인가 오류인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을 똑같이 진행한다고 해도 우리를 둘러싼 객관 환경가 주체의 준비정도에 따라 변화무쌍한 다양한 결과가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과를 놓고 그것이 현실 우리의 준비정도에 한계적 지점인가 아니면 운동의 방향 설정에서부터 잘못된 오류였는가를 판단하는 일일것입니다. 오류와 한계를 잘 구별하여 한계적 지점을 잘못된 오류로 판단하여 전체 투쟁과 사업에서 패배적 내지 조직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⑦ 대중들과 (혹은 골간일꾼들과) 의 총화에서 나서는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현재 우리일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고민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동의를 하는데 대중들과 합의하고 동

의하는데서 나서는 답답함은 대중 실천활동에서 소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동을 총화하는데 있어서 나서는 대중들과의 괴리를 극복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논리정연한 그 어떤 말로 대중을 일시적으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식화에 선차적 주목을 돌리는 것입니다.

⑧ 총화한 후에 여학생운동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다시 동지들과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함께 총화하도록 합시다.
고민이 생기면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연히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식의 주체는 자기자신이라고 했을때 부단한 노력으로 자신의 운동에 대한 안목과 식견을 높여가며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여야 겠습니다.

◉ 평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중요성을 각인하자
평가의 틀을 내오고 맞추어서 평가하자
평가한 내용은 문서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다음 사업시 꼭 먼저 참조하자.
평가는 기층과 함께 대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평가의 정형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가의 시기를 놓치지 말자 (평가는 1박 2일이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1. 정세인식에 대한 평가

1) 정세를 인식하고 분석하는데 있어서
6·15 공동선언지지 이행하고 여성들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창출하고 미국의 경제침탈과 정부의 사대매국적 경제정책으로 여성민중들의 생존권 보장 투쟁의 분출,

◉성과적 지점
여성민중의 주체적 정세를 뽑아내려는 노력이 점점 성숙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일꾼들의 정세인식에 대한 중요성과 노력이 많아졌다.

◉한계적 지점
전반적인 정세인식은 있었으나 급변하는 정세를 발빠르게 인식하지 못한 한계
정세토론이 기층까지 일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한계
기층 학우대중과 기층 여성민중들의 직접적인 만남을 창조적이고 꾸준하게 진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학우들과

정세인식의 괴리가 있음
주체정세 (지역 여성민중의 정세) 를 파악하는데 소극성이 있었다

◉원인
정세파악의 중요성의 인식정도 미약
정세토론의 경험이나 꾸준히 진행하려는 노력이 부족, 일상화 되지 못함
정세토론을 잘 하는 방도 요령, 정세토론의 수준이 낮음

◉대안
정세토론의 정형을 중앙에서부터 만들어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세토론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통신총화 및 신문읽기 등의 자료수집활동 정례화하자
기본 기층 대중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여학우대중, 여성민중들과의 정기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하자
연대사업을 강화하여 지역의 여성운동의 흐름을 정기적이고 목적의식적으로 총화하자
기층에서의 정세인식력을 높이기위한 상층에서의 구체적 지도가 담보되어야 한다.

2) 정세에 기반한 사업계획, 투쟁의 도출이었는지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전반적으로 올 정세에 기반한 사업과 투쟁을 도출하였다.

◉한계점
객관 정세에 맞는 투쟁과제는 제출되었으나 여학우 대중 여성민중들의 주체정세에 맞는 사업과 투쟁을 제출하는데는 미흡했다.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 군국주의 부활책동, 위안부문제 해결투쟁에 대한 미흡
- 정세적 요구만큼이나 상승적인 투쟁으로 만들어가는데 부족.
- 시기별 투쟁 조직화에 소극성 존재 (상황과 조건탓을 많이 함)

▶▶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시기별 사업이 제때 알맞은 형태로 제출되었는가. 그 집행정도 나섰던 어려움, 전여대협 사업계획과 남여대협 지침의 형식에 대한 평가)

2. 대중투쟁에 대한 평가

1)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 조국통일 투쟁
6·15 공동선언과 여성, 그동안 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활동을 높이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여성이라는 존재적 특성과 어떻게 연결할것인가 어떻게 절박함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나 이해가 부족했었는데 올해 그것을 밝히는 과정이었다.
여성과 통일, 공동선언 항목항목 별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해라고 볼 수 있다.

각 단위에서는 신이북여성바로알기 운동을 꾸준히 진행한 단위도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는데 보다더 남북여성의 몫으로 찾아내고 그것을 자주교류의 사안으로 만들어 내려는 고민들이 많이 진행되었던 한해이다.

6·15공동선언을 막아나서는 제반 반통일적 제도, 인사들에 대한 투쟁을 전체대오와 함께 잘 벌여왔고 전남대 총여학생회장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서도 알듯 여학단위 대표자들의 영웅적인 투쟁들이 있었던 한해였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학우속에 공동선언과 여성의 연관성을 잘 의식화해내지 못하고 일꾼들만의 이해로 그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신이북여성 바로알기가 아직도 전단위에서, 또 계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 여성교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학내 선전의식화가 잘 되지 못했고, 그것과 함께 남북 여학우 교류를 실질적인 사업화 해내는데 구체적인 구도가 없는 것이 한계이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서 수감자와 인연맺기 사업인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아직도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우리단위 계획을 내오는데 부족함과 그것을 집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2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및 국방위원장 방문 환영위원회 구성은 정세적으로 미국의 대북 강경책동과 전쟁도발 책동으로 인해 성사될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남북의 정상회담, 우리민족끼리의 공조를 만들어가기 위한 기층조직까지 의조직화활동에서의 총여학생회의 계획이 부족했던 것은 한계지점이다.

◉과제
6·15 공동선언과 여성, 여대생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명확히 의식화해내는 것이 요구된다.
꾸준한 남북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과정으로 신 이북여성바로알기를 계속적으로 진행할것 요구된다.
전체 민족민주운동에 여학우 대중도 주체로 나설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서의 고민이 깊이 요구된다. 특히 자주교류의 실질적 성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학에서의 고민과 사업 집행

2) 반미 자주화 투쟁
기간 반이 자주화 투쟁에서의 여학단위는 자기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해왔던 과정이다.

주한미군에 의해 해마다 살해되는 이남 여성민중들, 퇴폐향락적인 성문화들의 유포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꾸준한 반미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었다.
월별 반미주간 사업으로 군산투쟁, 반미 마당사업, 반미 생활문화 운동 등을 제기하였고 기지촌 활동과 기지촌 탐방, 주한미군 범죄 관련 모의 법정 만들기 등 의 사업들을 집행하며 반미 의\조직화의 성과들을 구체화했어야 했다.

근 한달동안의 전남대 총여학생회장 이윤미 동지의 목숨을 건 단식농성에서도 대학에서 반미 실천단에 여학일꾼이 적극 결합했던 과정 등 여학일꾼들 또한 올바른 정세인식속에서 미국의 간교한 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빠짐없이 함께 만들어갔던 과정이었다.
또한 전남대에서의 기지촌 활동을 다녀온 것은 큰 성과이다. 남여대협에서 전남대만의 활동이었지만 그곳에서 핵심이 발굴되고 또한 새내기들을 의,조직화해냈던 성과가 남는 활동이었다. (준비과정이나 다녀와서의 활동 보고등 전체대오속에서 성과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다.)

대학에서 반미 운동을 잘 꾸준히 벌려냈던 그간의 투쟁의 성과들을 더더욱 상승시켜내는데의 부족함이 있었다. 모범적으로 한 단위에 모의법정을 조직해들어가지 못한 과정이나 꾸준한 여성의 피해를 중심으로한 학내 의식화가 진행되지 못한 과정이 아쉽다

기지촌 활동을 전체화하기 위한 활동이나 일상적 반미운동의 모범을 만들기 위한 남여대협 지도와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부족하였다.

◉과제
여학단위의 꾸준한 대중 선전의식화가 필요하다. 관성이 아니라 시기시기마다 여학우 대중들을 의조직화해 낼 수 있는 사안들과 과제들로 대중을 의조직화해가는데 이악스럽게 달라붙고 성과를 챙겨야 한다.
보다 더 대중을 조직하는 반미 실천활동을 잘 벌려내자 (반미생활문화 운동 등)
기지촌 활동을 여학단위 없는 대학까지 전체화해내고 지역 여성단체들까지 함께 만들어가보자
송정리 미군 증강 이후의 상황에 대한 준비를 잘 하자 (윤락가가 생겨나는 것에 대한 반대투쟁을 준비하는 것과 미군에 의한 퇴폐향락문화가 광주에 유포되는 것에 대한 준비)

3)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반일투쟁
올 한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놓고 그 본질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도와 한반도의 위협에 대해 광범위한 반일 투쟁을 조직해내는 것이 어느 해 보다도 요구되는 한해였다.
초반기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가시화되었을때부터 여학단위에서는 전여대협과 공동대책위 이름으로 대중의식화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대중 조직화에 대한 고민과 활동이 많이 진행되는 한해였다.
각 단위에서 반일 릴레이 시위며 나눔의 집 방문단 모집 활동, 위안부 할머님 후원 모금활동 등 일본군 위안

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의의도를 간파하고 대중들에게 본질적인 문제지점들을 올 한해 동안 일상적으로 의식화해 들어갔던 한해였다.
남여대협 대의원 대회를 통해 보다 더 대중적으로 기층 학우들까지 조직하며 반일투쟁의 중요성과 실천투쟁을 만들어낸 성과점들이 있다.

특히나 남과 북 여성계 대표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통의 해결의지를 가지고 남북 여성대회를 가질 것에 대한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북 모두의 문제 민족의 문제. 여성의 문제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성들부터 해결할것에 대한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은 큰 성과지점들이다.

그동안 조직되지 않았던 광주대 총여학생회의 모의법정을 성사과정과 역사왜곡을 위한 활동은 당면한 투쟁의 요구를 가지고 남여대협의 더 큰 연합을 실현하는데 일조했다.

반면 대학에서 반일투쟁의 선봉부대였던 여학단위 다운 보다더 대중적인고 발전적인 투쟁의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서명운동, 개인 릴레이 시위로 그침, 1회적 집회로 그침)
광범위한 단체들과의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통해 반일투쟁에서 민족자주투쟁으로 승화시켜낼 것에 대한 요구들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다. (조직적 한계 조건탓을 많이 했다.)

4) 여성민중 생존권투쟁과 연대투쟁

학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문제 해결 투쟁, 여대생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여대생 먹고살기 운동본부 구성, 여성농민과의 혈연적 정치적 연대 강화 등 기층 여성민중들의 생존권적인 투쟁을 잘 받아안고 투쟁하여 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사업을 강화할 것에 대한 요구가 있는 한해였다.

◉성과

학내에서부터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한해였다.
3·8세계 여성의날 을 맞아 지역 금호타이어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하며 학내에서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조사사업, 농활 여성농민반 활동을 통해 여성민중의 삶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한 활동을 잘 펼쳤다.
간헐적인긴 하지만 여학우대중의 취업문제며 취업시 여성의 권리찾기등의 의식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농활의 여성농민반 활동을 통해 기층에서부터 여성농민의 삶에 대한 인식어 높아졌고, 어렵지만 대표자들부터 직접 여성농민반을 성사하는 과정에서 단위의 자신감이 회복되었다.
광지지역 여성단체들과의 공동의 투쟁 (일본의 역사왜곡 반대 군국주의 반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5월 여성제를 통일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만들어 낸 것 등)

◉한계

연대사업 주체의 부재- 기층연대 부족
일상적이고 정치적 연대를 가져가는데 부족- 일회적, 공동의 실천투쟁 도출 미흡
정기적이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여대생 취업문제에 대한 고민을 진행
주체의 요구를 높이 인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부족

◉과제

기층까지 연대단위를 명확히 세우고 일상적인 연대를 강화해들어가자
1111 연대의 모범을 창출하자
여대생 취업문제에 대한 대중 의, 조직화활동과 투쟁을 1년 구도를 가지고 도출하고 진행하자
학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문제, 여성농민의 문제 등 기층 여성민중들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연대해내자

5) 반 가부장제 투쟁과 올바른 성문화 정착 운동

기존의 반가부장제 투쟁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으로 국한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 학내에서부터 호주제 문제나 다른 여성문제들을 의식화해들어갔던 성과가 있다.
몇 년간 벌여왔던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대학본부와 직접적인 논의의 주체로 총여학생회가 나서서 이루어지는 성과
일꾼들부터 호주제문제, 매매춘 문제 등 반가부장제 투쟁을 벌여내기 위한 자기 고민을 높이는 한해였다.
일꾼들 내에서의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들의 노력이 있었다.

◉한계지점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 문제지점(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의식화해내는데 부족 - 아직도 사건중심의 선전
일꾼들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해결의 노력에 있어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기하고 실현해나가는 과정이 부족했다.
호주제나 매매춘 문제등 아직도 학우대중속에 여론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이것을 사업화 해내는데 부족함 - 일방적인 의식화 내용으로 계획되고 있는 부분

◉대안

학내 성폭력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와 대중 의식화 필요
일꾼들 내에서의 성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제시 및 실천
호주제나 매매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가부장중심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학습 필요

3. 조직사상영역 평가

1) 남여대협 중집 조직생활 평가

남총련 조직생활과 남여대협 조직생활 이중적 구조

-- 남총련 조직생활에 결합하면서

◉성과점

남총련 조직생황에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남총련 내에서의 남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해설하고 공유하려고 노력함

사상적인 수준의 향상과 정세를 빠르고 정확히 인식 할 수 있었던 점

◉한계점

남총련 조직생활의 비중이 크다보니 여대협 조직생활의 안정적인 모습 부족

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10만의 사업과 투쟁으로 만들어가는데 보족함이 많았음

-- 여대협 중집 조직생활에 대한 평가

◉성과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있게 논의를 하려고 하고 한명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함께 한것

여성계 정세에 대한 토론이나 사업계획의 토론 등 국별 역할을 높이려고 노력함

◉한계점

학습과 정세토론이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사업토론과 총화중심의 조직생활

여러 직책을 겸하다 보니 국사업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점

◉대안

남총련 조직생활과 여대협 조직생활의 탄력적 운영 - 여대협 중집 조직생활 강화 요구

여성정세에 대한 토론을 일상화 할 것

학습생활을 정례화할 것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할 것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깊이있는 논의와 연구 필요

4. 대표자 모임에 대한 평가

그간 묶이지 않았던 대학들까지 함께 하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다.

정기적이고 내용성을 담보하는 대표자모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대표자들의 참여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

대표자 모임을 통해 대학의 서로의 대학에서의 모범들을 받아안으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시기시기마다 사업과 투쟁을 앞두고 회의속에서 결의하는 과정이었다.

◉한계점

대중조직다운 모습으로 대표자 모임을 가져가는데 더 많은 대학총여를 결합시켜내는데 이악스러움이 부족하였다.

유동적인 상황(결속력이 약한 대학의 참여여부)에 대한 고민을 미리하며 대표자 모임을 계획하는데 부족했다.

대표자들의 토론을 조직하기 보다는 중집안을 가지고 가부를 결정하는 식의 논의, 일정공유와 총화에 그치는 논의는 대표자들의 결의를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대표자 모임에서의 결정사항들이 대학에서 잘 집행되어지는데 아쉬움이 있다

대표자 회의 안건을 미리 대학에서 숙지하고 고민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많은 책임성 있는 논의를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대표자 모임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봅시다.

5.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올 한해 남여대협의 사업과 투쟁을 받아안고 투쟁하고 있는 전대, 조대, 목대, 광주대, 순천대, 해양, 여수대 등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대학의 여학생운동을 발전적으로 만들어가는데 많은 역할이 주어졌던 한해였다.

전, 조, 목대를 중심으로 지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도대학들에 대한 대학의 실태나 운동 대중화의 중핵적인 과제를 내오고 그것을 푸는데 적극성이 어느 해 보다 발현되었다.

기층일꾼들까지 세세하게 총화하고, 기층 모범총화를 제때 잘 할 수 있었으며, 남여대협의 지도력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한 한해였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대학의 간부들을 지도하고 핵심으로 더욱 육성해내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또

한 대학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때 빨리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을 조직하기 보다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느껴하는 경우도 많았다.

중소캠까지 여학생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교양하고 인자를 마련하는데 주력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직접 기층에 가서 모범을 일구고 그 모범을 전체 대학에 일반화 시켜내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한계점
지도사업에 많은 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한계
투쟁내용의 강변보다는 좀더 일꾼들과의 인간적 친화력을 더욱 높이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방법으로 진행되는데 부족함이 나타나기도 함.

◉대안
지도사업의 횟수, 여유를 가지고 정례화 시켜낼것
현실적으로 지역적 한계가 있는 대학을 잘 지도해낼것이 요구
연사주체의 활동과 지도대학의 선정에 배려가 있어야한다.

▶▶ 올 한해 남여대협 중집의 지도사업에 대한 평가, 내년 요구지점들을 이야기 해봅시다.
(계때 나서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었는가, 지도사업의 진행형태, 요구부분)

6. 남여대협 의장 활동에 대한 평가

올 한해 남여대협의 각 대학 기층 현황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황에서 어느대학이 맡게되더라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다. 대학의 핵심 한 명 한 명에 대해 요구되는 지점들이 많은 시기에 조선대에서의 결의는 어렵지만 큰 결의였다.

남여대협 의장으로서 지역에서의 여학생운동, 여성운동에 대한 총화와 지도를 잘 해낼것이 여학생운동의 대오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는데 절박한 요구였었고, 여성운동에 대한 정세적 요구지점들을 잘 받아안고 여성운동의 선봉부대다운 모습으로 지역 여성운동에 역할을 다할 것에 대한 요구 또한 큰 한해였다.

어느 대학이든 받아안기 어려운 객관 상황에서도 조선대가 남여대협을 받아안으면서 조선대 뿐만 아니라 남여대협의 상층운동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지고, 활동력을 높이기 위한 자기 노력을 하는 한해였다.

반면 14기 남여대협 의장님의 활동은 조선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었던 것에 아쉬움이 있다. 전반 운동의 요구만큼이나 남여대협의 지도력을 높이는 부분에서도 부족했고 남여대협 의장님 개인적인 운동에 있어서도 더 큰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가는데 이악스러움이 부족한 한해였다.
조선대 여학생운동에 대한 담보를 중집간부일꾼들의 활동으로 채워내지 못하고 의장님의 활동을 대학에 국한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그럼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5만의 대표적 대중조직 남여대협의 위상에 맞는 역할의 하는데는 부족함이 나타났다.
간담회 등 대학 일꾼들과 직접적인 만남을 많이 가져갔어야 하는데에 대한 아쉬움

◉대안
어느 대학이든 지금의 조직적 현황에서 여대협 의장을 맡는 것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지역에서부터 여대협의 건설과정에서 해당 대학의 여학생운동의 발전전망을 확신성있게 내오고 그 것에 대한 지도를 남여대협 중집에서 담보해 내오는 과정이 중요하다.
남여대협 의장님 개인의 운동에 있어서도 더더욱 이악스러운 발전의 과정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지역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에 대한 깊이있는 총화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운동발전뿐만 아니라 그 대학에서의 핵심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대학운동의 실질적 성과로 되어야 한다.
남여대협 5만 여학우의 자주적 대중조직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여학단위가 없는 단위까지의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하고 총화하고 지도해들어가는데 의장님의 활동이 많이 요구된다.
조직생활 가운데 의장의 활동을 잘 보위보좌 해야 한다.

▶▶ 올해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 의장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제출해봅시다.

7. 여학생운동 대중화를 위한 평가

1) 여학생운동 대중화를 위한 대중 의, 조직화 진행정도
올 할해 여학생운동의 대중화가 사활적인 요구였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학생회에 대한 필요성을 선차적으로 인식시켜낼 것,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우들 속에서 대중적으로 합의확산할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대중조직다운 대의체계를 건설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층의 강화와 자립자활력을 높일것에 대해 결의를 했었다. 그 속에서 단위에서는 일꾼 재생산의 구조를 잘 확보하고 질적인 도약을 만들어가야 하는 한해였다.

사업계획으로 제출되었던 것은

매주 1일 '이동 총여학생회' 운영
1년 내내 '과(여부) 간담회' 진행
대의체계 건설과 강화를 통한 전체가 결의하고 집행하는 여학생운동 만들자
소모임 건설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일꾼 재생산구조 확보
과여부 책임지기
여학생회실이 대중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성과점
대중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단위의 노력이 많이 있었다.
이동 여학생회를 진행하려하고 기층 간담회를 통해 기층의 여학일꾼을 세우고 기층의 역할을 높일것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였다.
조선대의 경우 정기적으로 총여학생회 운영위를 통해 사업과 투쟁을 결의하고 집행하였으며 전남대의 경우 기층의 여학일꾼을 직접 담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단위와 함께 조직생활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목포대경우 모든 사업과 투쟁을 전체 대오속에서 합의하고 함께 진행하며 전체 대오속에서 여학생회의 위상과 여학생운동의 중요성을 더더욱 인식하는데 자기 역할을 다했던 한해였다.

새내기 사업의 모범을 보인 조대 상대 여학생회
각 대학에서의 대중 의식화를 위한 정기적인 화장실 신문 제작, 총여학생회 소식지 제작 등

◉한계점
꾸준하고 일상적인 대학우 만남의 공간을 만드는데 부족했다.
각 단위마다 자립자활적인 사업과 투쟁을 만들고 집행하는데 부족했다. (총여학생회 중심으로 결집은 되었으나 그것을 자기 단위의 사업과 투쟁으로 만드는데 부족)
각 대학마다의 핵심일꾼을 발굴하고 일꾼 재생산을 위한 이악스러움이 부족했다.
각 대학마다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의 사활적 요구에 대한 자기 구도가 부족했다.

◉대안
각 대학마다 여학생운동의 사활적 요구를 잘 이해하기 위한 현황파악과 중장기적인 대책마련 시급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깊이있는 학습과 토론
각 단위마다 자립자활적인 투쟁을 생산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단위의 구도를 명확히 내오기

2) 간부혁신의 문제

'할 수 있을까' 하는 소극성을 대담하게
대중속에 새롭게 거듭나는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3개 기풍세우기(학습, 투쟁, 생활) 에 여학일꾼이 주동에 서자
대표자의 혁신 모범 창출

▶▶올 한해 여학일꾼들 속에서 나타났던 문제들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간부의 이탈, 비판과 자기비판이 잘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한 대오의 불신, 여학생운동에 대한 학습의 부족,

▶▶ 각 단위마다 3대 기풍 세우기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행정도는 어떠했는가
대표자의 일대혁신을 위한 활동은 어떠했는가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사활적 과제는 무엇인가?
각 대학에서의 여학생운동의 사활적 과제는 무엇인가?
(학습에서의 요구지점, 조직생활에서의 요구지점, 대중사업에서의 요구지점 등)

8. 전여대협, 남여대협으로의 일심단결의 기풍을 만들고 여학운동 대오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평가와 전망

올 한해 남여대협 일꾼 모임을 제대로 가져가보지 못함 (큰 대중사업 공간이 아닌 여학일꾼 결의대회나 교양 학교등의 부족)
-전여대협 일꾼 모임에서의 우리지역의 참여가 부족함
-기층까지 남여대협, 전여대협 사업계획을 자기단위것화 해내는 과정 부족

▶▶앞으로는 어떻게 일꾼들의 결속력을 높이고 일심단결의 기풍을 세우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9. 평가에 추가되어야 할 부분은 ?

오월의 딸 자주의 새바람
14기 광주전남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